# 광주시, AI 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 낸다

에너지산업 선도 '에스 에너지' 그룹과 업무협약 인공지능 산업 관련 36번째 기업 리치앤코 유치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경기 성남에 있는 에스 에너지(S-Energy) 그룹 본사에서 광주 형 AI-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한 광주시는 이날 첫 에 너지 기업과의 협약체결에 따라 인공지능 (AI)-그린 뉴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nergy그룹은 태양광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모듈을 판매·제조하는 S -Energy, 태양광 관리운영 및 발전소 정 밀진단 서비스를 하는 S-Power, 건물 및 발전용 연료전지를 제조·판매하는 S-

Fuelcell로 구성된신재생에너지 토탈 솔 루션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 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RE100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형 AI-그 린뉴딜 사업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S-Energy그룹은 광주형 AI-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자립도시 광 주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참여 ▲광주형 AI-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용모듈 지역 내에 서 생산·공급 노력 및 AI 클라우드기반 통 합운영 플랫폼 구축에 적극협력 ▲광주형 그린뉴딜의 마을, 학교단위 협동조합 펀드 참여 및 수익 재분배,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기타 인공지능・에너지 분야 등 상호 업무협력이 가능한 사항 등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가 에너지 자 립을 이루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며 "에스 에너지 그룹과 협력해 광주가 안전하고 살기 좋 은 녹색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광주시는 또 AI산업 관련 36번째 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광주시는 이날 ㈜리치 앤코는 서울 본사에서 광주형 인공지능 비 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에 따라 ㈜리치앤코는 10월 출 시 예정인 임신 출산 통합관리앱의 난임 서비스 등을 광주에서 시범 운영한다.

해당 앱은 임신 준비부터 과정, 출산까 지 아우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개인별 특 성이 담긴 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화하 고, 맞춤형 상품 및 정책으로 재생산해 고 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담겨 있다.

리치앤코는 광주에 법인 및 지역 연구 센터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협력한다.

리치앤코는▲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전문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및 연구센터 설립 추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에 나선다.

또 자회사인 ㈜리치플래닛은 AI난임센 터와 언택트 인공지능 설계사 보험센터, ㈜리치프렌즈는 AI 반려동물 빅데이터 센 터, ㈜바른팜은 도심형 스마트 팜을 위한 연구센터 등 광주법인 및 연구센터를 각각 설립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힘을 /박진표 기자 lucky@

#### "농작물재해보험 가을배추·양배추 포함해야"

전남도의회, 정부·국회에 촉구 '농작물 보험 확대 건의안' 가결

전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농작물재 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행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누락된 가을배추. 양배추 등을 보험 가입 가능 품목으로 조 정하는 등 농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혜자 의원 (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본회의에 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그리고 잇따른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재해피해가 발생했 다"며 "그런데도 가을배추와 양배추는 농 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경제 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 상 품목에 전국 최대 주산지인 전남의 가 을배추와 양배추를 포함시키는 등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건 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정 책보험으로써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안정 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 년부터 시행해 67개 품목으로 운영해오고 있지만, 전남의 농가가 가입 가능한 보험 대상품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대상품목 중 배추는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로 한정돼 있고, 양배추의 경우 는 해당지역이 제주도로 국한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2019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가을배추재배면적은 2666ha (24.3%)로 전국 최대면적으로 조사됐고, 양배추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넓은 재배 면적(1974ha(28.2%))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비오 신부 선종 4주기 추모식

故 조비오 신부 선종 4주기인 21일 오후 담양 월산면 천주교공원묘원에서 유족들과 소화자매원, 5·18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상반기 도내 중기제품 2조6000억 어치 구매

올 목표액 65.6% 달성

전남도가 올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제 품 우선구매 공시제'에 따라 2조6367억원 어치의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는 전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도

적을 상·하반기에 걸쳐 기관별 누리집에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등 18개 기관이 추가돼 총 65개 기관의 구 매실적이 공시됐다.

기관별 구매실적은 상반기 총 구매액 2 조6000억원 중 기존 47개 참여기관은 2조 505억원을, 올해부터 참여한 혁신도시 공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매 목표액은 총 4조203억원으 로상반기에 65.6%를 달성하는 나름의 성 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사와 물품구입, 용역수행에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특히 100억원이 넘는 종합공사 등 지역 제한 입찰 적용이 불가능한 공사에 대해 도내 기업이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 도록 공동계약을 활용한 것이 성과를 이 끈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혁신도시 공공 기관과 지역은행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참여 독려에 나섰다.

전남도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 업 운영이 원활치 못해 실적이 부진한 기 관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연말까 지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관리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무신고·유사 의료행위 업소 20곳 적발

불법 영업장 검찰 송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위생수사 팀은 "반영구화장(눈썹문신 등), 유사의 료행위 등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 반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 자 급증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고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 려운 무신고 공중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 소로 위장한 불법 유사의료행위 업소가 성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획 단속을 했

주요 위반행위로는 무신고 영업 4곳, 반 영구 화장·불법 의료기기 사용·전문의약 품 불법 사용 등 16곳이다.

광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 사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무신고 영업 과 유사 의료행위(반영구 화장)를 한 20 개 업소 대표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해당 자치구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조치 를 할 계획이다.

이윤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 으로도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 절될 때까지 자치구 등과 협조해 지도 단 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추석 비상 근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광주 보건환경연구 원이 추석 연휴에도 비상 근무 체계를 가

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코로나 19, 식중독, 미세먼지, 환경오염 사고 등 에 대비해 비상 근무한다. 분야별 기관과 연락체계를 갖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환경·가축 방역 모니터링도 강 화한다.

감염병과 집단 식중독 검사반에는 5개 조, 31명을 투입해 검사 속도를 유지한 다. 환경오염 사고 대응반을 5개조,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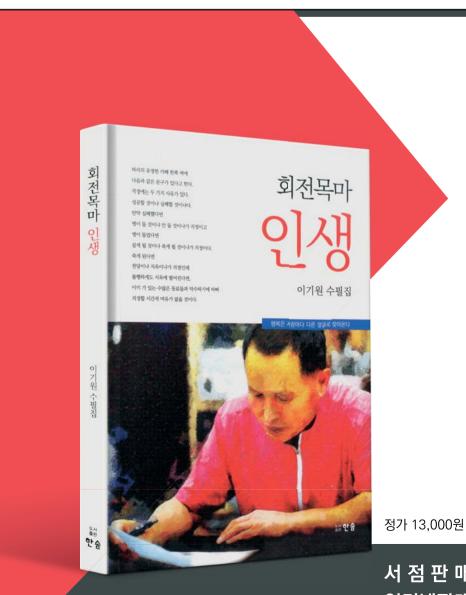
으로 구성하고 대기환경 종합상황실을 운 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 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을 24시간 21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추 측정해 '우리 동네 대기 정보 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안전 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가축방역반도 가동한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연휴 에도 분야별 검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이겠'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서 점 판 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홍지서림) 인터넷판매 ㅣ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